



HAL
open science

Kuunmong-ŭi chemog-e taehayŏ (ᄃᄃᄃᄃ ᄃᄃᄃ =On Kuunmong's title)
Daniel Bouchez

► **To cite this version:**

Daniel Bouchez. Kuunmong-ŭi chemog-e taehayŏ (ᄃᄃᄃᄃ ᄃᄃᄃ =On Kuunmong's title). ᄃᄃᄃᄃ (Tongbang hakchi), 2006, 136, pp.387-409. <halshs-00443555>

HAL Id: halshs-00443555

<https://shs.hal.science/halshs-00443555v1>

Submitted on 30 Dec 2009

HAL is a multi-disciplinary open access archive for the deposit and dissemination of scientific research documents, whether they are published or not. The documents may come from teach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France or abroad, or from public or private research centers.

L'archive ouverte pluridisciplinaire HAL, est destinée au dépôt et à la diffusion de documents scientifiques de niveau recherche, publiés ou non, émanant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et de recherche français ou étrangers, des laboratoires publics ou privés.

<구운몽>의 제목에 대하여

다니엘 부셰

(Daniel BOUCHEZ)*

현재 남아 있는 한국의 고대 소설의 사본에는 하나같이 저자의 성명에 관한 언급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九雲夢>도 만차가지다. 그러나 이 작품의 경우에는 다행히 당대 사람이 그 작가 이름을 기록해둔 바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陶庵 李穡(1680-1746)가 쓴 <三官紀>라는 저서에 <구운몽>에 대한 한 귀절이¹ 나와있고 거기에 저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작품에 대한 다른 여러가지 정보가 명시되어있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稗說有九雲夢者 卽西浦所作 大旨以功名富貴歸之於一場春夢 安以慰釋
大夫人憂思 其書盛行閨閣間 余兒時慣聞其說 盖以釋伽寓言 而中多楚騷遺意
云

“소설들 가운데 <구운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西浦의 저작이다. 공명부귀도 결국은 봄날의 한낱 꿈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 그 작품의 줄거리다. 이를 통해 그는 자기 모친의 근심을 위로해 드리고자 하였다. 이 책은 부녀자들 사이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 나도 어린 시절에 거기 나오는 이야기를 종종 들곤 했었다. 이것은 일종의 불교 우화로 보이는데, 거기에는 초(楚)의 소(騷)들에서부터 남겨진 뜻이 다분히 들어 있다.”

李穡는 이 와 같이 대주고 있는 저자 이름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西浦는 肅宗 시대의 고관 이었던 金萬重(1637-1692)의 호인데

* 프랑스 국립학술연구원 (C.N.R.S.) 명예교수, 한국 고전문학.

¹ <三官記>, <稗林>, 탐구당, 1970, 9-338

李緯는 그와 관계가 많았다. 김만중과 동일한 당과(西人 및 老論)에 속했고 모친은 그 과가 변호하던 閔妃의 친형이었고 또 사촌 하나가 김만중 손자인 金光澤에게 출가한 것등으로 보아서 이 증언에 틀림이 없다. 그는 또 김만중의 무덤 뒷면에 墓表陰記를 쓴 사람이다.² 이러한 연유로 이 귀절은 <구운몽> 연구에 대한 주요 자료로 간주되어왔다. 하지만 끝에 나오는 이른바 楚騷에 관한 언급은 아직도 문제가 되는 것 같다.

楚騷, 즉 楚나라의 騷라는 표현은 여러가지 해석을 요한다. 騷라는 용어가 楚나라 시인 屈原의 離騷에 기원하고 있고 楚辭에 기재된 모든 작품들에 대해서도 쓰여지게 되었으며 또 <文心彫龍> 제5권에서 볼 수 있듯이 漢代의 賦들에까지 적용되었다. 이 賦라는 갈래에 대해서 그것이 비즉 諷諭 및 묘사를 중시하는 것으로서 꼼꼼히 검토해 본 뒤에야 비로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朱熹가 기술한 바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³

1. 초나라.

한국의 고대 소설들은 일반적으로 주인공의 역사와 가족 배경에 관한 소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운몽>의 서두는 지리적 배경에 대한 묘사이다. 이 뚜렷한 차이점은 뭔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또 “중국에 이름난 산이 다섯 있으니”라고 하는 첫 문장의 장엄한 표현은 이런 인상을 돋우고 있다. 다섯 개의 신성한 봉우리들이 열거된 뒤, 이야기는 그 중 하나인 南岳(일명 衡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런데 이 거대한 남악산은 洞庭湖와 九疑山 (일명 蒼梧) 그리고 湘江 등이 각각 北, 南, 東 방향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의 한가운데

² <西浦年譜>, 김병국편, 1992, 쪽 341 참고.

³ <楚辭集注>, 권 1, 離騷.

위치하고 있다. 이 광대한 지역은 바로 楚나라, 戰國 시대에 그 주민들이 온통 漢人으로 간주되지는 않았던 낯설고 신비에 싸인 초나라의 일부였다.

그곳은 유명한 굴원에 의해서 길이길이 명소가 되어 있었는데, 굴원은 바로 앞서 언급된 <이소>의 시인이며 초나라 왕의 불운한 諫臣이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의례 그가 살았던 나라의 이름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누가 시를 지어 楚를 들먹였다면 그것은 곧 굴원을 암시하는 것으로 푸리되었다.⁴ 失寵한 정치가의 처지에서 楚客으로 자처하는 것은 억울하게 쫓겨난 충직한 간신이라는 외피를 스스로 두르는 것이었다. 楚는 또 그 후의 漢代에 와서는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는 자연 그대로의 나라로 여겨지기도 했으며, 이때 賦의 작가들은 글의 배경을 환상적으로 꾸미기를 좋아했다. 김만중의 다른 소설인 <남정기>에서도 사부인이 도망가고 있는 남부 지방은 또한 옛날에 초나라 땅이었고 거기에 주인공을 굴원에 비기고 있는 말들이 많다. <구운몽>에는 굴원에 언급한 일이 전혀 없고 이름조차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대신 성진-소유 양면이 있는 그 주인공이 초나라 사람인 사실은 거듭거듭 명시되고 있다.

젊은 수도승 성진이 잠이 들어 꿈꾸고 있는 사찰은 형산에 자리잡고 있고 그곳은 초나라 지역의 서쪽이다. 그 환생자인 양소유도 초나라 출신이다. 이 사실은 주인공이 직접 그렇게 소개되기도 하고⁵ 다른 인물들을 시켜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하거나⁶ 또는 시가를 통해 암시하는⁷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환기되고 있다. 얼핏 보기에 그 같은 力說은 놀라운 것이다. 왜냐하면 唐나라 시대에 楚라는 이름이 붙여진 행정구역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주인공의 경력은 초나라 왕의 실총한 간신

⁴ 예를 들어, <西浦集>, 상계서, 면 36. 김만중이 1674년에 강원도 金城에 유배로 가 있을 때 楚客으로 자칭한다.

⁵ 丁奎福편, <九雲夢 古典의 研究> (1977)에서, 쪽 165-282 (이로부터 石軒편). 쪽 176, 181, 189, 256 참고. 鄭炳昱편, <九雲夢>, 민중서관, 1972 (이로부터 백영편), 쪽 36, 52, 84, 340.

⁶ 石軒편, 193, 백영편 104.

⁷ 石軒편, 183.

굴원의 불운과 아무런 공통점도 없음을 볼 때 저자가 이 지리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좀 의문이다.

더욱이 초나라에 있다는 양소유의 출생지는 연대적 배경이 희미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즉 연대는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대한 몇가지 암시를 종합해 봐야만 비로소 그것이 대략 9세기 초 무렵의 이야기라는 짐작이 갈 뿐이다. 이와는 반대로 주인공이 태어난 지방이라든가 구역에 관해서는 아무런 의문도 남기지 않고 있다. 출생 지방은 唐代에 제국을 나누고 있던 10개 道 가운데 하나인 淮南이다. 이 지방은 揚子江 북쪽과 漢江의 동쪽, 그리고 洪澤湖로 흘러들어 가는 淮河의 남쪽에까지 펼쳐져 있었다. 오늘날에 그 지역은 安徽省의 대부분을 포괄하며 湖北省, 湖南省, 江蘇省 등과 인접하는 곳이다.

이러한 경계를 지닌 회남도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천이백년전 전국시대에 실제로 초의 영토이었다.⁸ 그러나 이곳은 초 왕국에서 揚子江 중류의 평야, 洞庭湖, 湘江 그리고 남쪽의 산들과 같이 전설이 생겨날 만한 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지대였다. 동쪽에 위치한 회남은 시인들이 즐겨 노래했던 곳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주인공이 초나라 사람이라는 사실은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저자는 왜 그를 이같이 변방 지역에서 태어난 것으로 만들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지방의 이름과 소설 초두에서 젊은 수도승이 등장하는 산의 이름이 연관성이 있고 의미도 있는 것 같다. 회남이 당대에 와서는 일개 지방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지만 그 이전 前漢朝하에서 그것은 한 諸侯國의 명칭이었다. 이곳이 성진의 사찰이 있었다는 衡山과 인접했다는 사실은 司馬遷의 史記 제 118권의 제목인 淮南衡山諸王의 傳을 읽어본 사람이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사마천은 여기서 평생의 음모가들로서 야욕에

⁸ 石軒편 193, 백영편 104.

눈이 멀어 패배를 자초했던 劉씨 가문의 두 형제 安과 賜의 일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과 더불어 멸망한 그들의 두 왕국은 바로 초나라 전역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형산 및 회남에서 나왔다는 것은 곧 이중으로 초 출신임을 의미하며 또 말하자면 그 인격체 속에 이 나라 전체를 포용한다는 이야기라고 하겠다.

회남 지방내에서 주인공의 출생지가 아무데나 있다는 것도 아니다. 국문본들에 의하면 <취쥬>라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명에 대해 문제가 있다. 얼마전까지 알려진 한문본들은 모두 그곳을 秀州로 기록하고 있으며⁹ 鄭炳昱도 서울 대학 국문본에 나오는 <취쥬>라는 표기를 秀州로 복원시키고 있다.¹⁰ 그러나 秀州라고 한 행정구역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는 10세기의 五朝 치하 시대에, 다시 말해서 양소유가 살았던 것으로 생각되는 9세기보다 후대의 일이었다. 뿐만아니라 그곳은 전국시대에 초나라에 의해 정복된 바가 있었지만 본래는 뿩나라에 속해 있었던 땅이라 초나라 사람이라 자처하는 양소유의 출생지로는 적절치 않다. 게다가 唐代에 그곳은 회남 지방이 아닌 揚子江 남쪽의 江南지방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보태어 말하면 그 한문본들에 나와있는 秀州라는 지명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 결론이 내려진다. 그런데 唐朝하에서 회남 지방을 구성하고 있던 州들 가운데 첫 글자가 한국의 한자음으로 <수>라고 읽히는 것이 단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회남 남쪽의 安徽省에 소속되어 壽縣이라 불리우는 壽州라는 곳이다.¹¹

壽州는 한국 한자음에 맞는 이외에도 초나라 출신임을 자랑한 주인공의 출생지로 적절한데 다른 이유도 있다. 이것은 이 고장의

⁹ 石軒편 173

¹⁰ 백영편 25. 李家源, <九雲夢>, 연세, 1970, 쪽 58.

¹¹ 1988년에 출현한 독특한 한문본에는 그 지명은 제대로 壽州로 되어 있다 (丁奎福外, 金萬重文學研究, 국학자료원 1993, 쪽 15을 참고). 두가지 한문본들간에 중국 많은 지명의 표기는 이와같이 상이하면서 음으로는 동일한 사실등에 입각하여 필자는 그 한문이 역문에 불과하다는 논증을 전개한 바가 있다: <한국학보>, 68, 1992 가을, 쪽 31-61, 그리고 <동방학지>, 95 (1997-3), 쪽 143-172 참고.

역사이다. 史記 권40은 굴원의 조언을 멸시했던 바로 그 淮王의 아들인 초나라의 考烈王이 秦의 공격을 받아 기원전 241년에 어쩔 수 없이 동쪽으로 피신하면서 자신의 수도를 당시 壽春이라 불리우던 壽州로 옮겼음을 알려준다. 그 후 그곳은 다시 漢武帝 시대에 와서 초나라 즉 회남 지방을 나눠갖고 있던 두 創建 왕국 가운데 하나의 수도가 되었다. 여기서 王 劉安은 최초의 <楚辭>의 선집을 편찬하기도 하였다¹² <구운몽>에서 그토록 정밀하게 제시되고 있는 양소유의 출생지는 따라서 옛 초 왕국의 마지막 수도였던 곳이다.

그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걸쳐 비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도 초나라 사람들이다. 선녀로 변장한 하녀 춘운에게 화답하는 즉흥시에서¹³ 그는 스스로를 초의 襄王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宋玉의 작품으로 간주되는 두 개의 부-高唐賦와 神女賦-의 명백한 인용이다.¹⁴ 또 작품중 같은 춘운이 소유를 비난해 宋玉의 다른 부에 등장하는 초나라의 호색가 登徒子와 비유하는 바도 있다.¹⁵ 소유는 또 唐代의 유명한 시인 李白과 종종 비견되기도 하다. 그 첫번째는 술취한 몸으로 황제 앞에 불러 나가고 명령을 받아 시에 관한 제 생각과 취향을 표명했을 때 황제의 찬의를 받는 일도 있다.¹⁶ 그리고 나서 황제는 이백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만취한 상태에서 창작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그에게 시를 지어보라고 하였다. 이백은 스스로를 “楚의 狂人”이라 하여 孔子를 비웃었던 초인의 별명으로 자칭한 유명한 시가 있으니¹⁷ 그 위대한 시인의 출신을 누구라도 모를 리가 없었다.

2. 신비로운 여행

¹² 壽州에는 楚나라의 문학 전통이 살아 있었고 거시서 漢나라의 많은 賦가 창작되었다. <漢書>, 권 44 참고. 그리고 劉安王을 楚辭의 첫 편찬자로 보는 전문가들이 있다 (David Hawkes, *The Songs of the South*, Penguin Classics, 1985, pp. 28-29).

¹³ 石軒편 199, 백영편 128.

¹⁴ <文選>, 권 19.

¹⁵ 위와 같음.

¹⁶ 石軒편 214, 백영 편 176.

¹⁷ 廬山謠寄. <唐詩三百首>, 古詩七言.

이 초나라 문학인 <초사>의 풍성하고도 다양한 시들 속에, 또 그 후신이 된 漢나라의 부들에 온갖 주제들이 뒤섞여 있다. 실총한 대신을 버림받은 여인에 비유하는 것이 가장 유명하지만, <구운몽>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초 문학의 테마로서 거기서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른바 신기한 여행(mystical journey)에 관한 것이다. <이소>에 등장했던 이 주제는 선사시대 주술사(샤먼)들의 의식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통론으로 되어 왔다.¹⁸ 이런 미스틱컬 여행에서 주술사들은 복을 내려주십사 기원하는 신들의 거처를 향해 공간 속을 유람하는 시늉을 짓곤 했다. 이 주제는 漢나라 시대 한결 명확한 문학적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소>에서 그것은 단지 통치자와 그의 궁정을 피하는 것과 관계될 뿐이었다. 그러나 秦과 漢 시대에 와서는 그 여행이 자신의 제국을 거느리는 그런 군주의 것으로 되었다. 가공의 것이었겠지만 간혹, 秦始皇과 漢武帝에 의해 행해진 순례가 보여주듯,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였다.

신비로운 여행은 다른 두 편의 글에 있어서도 주요 테마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초사>에 들어 있지만 전문가들에 의해 漢代의 것으로 간주되는 <遠遊>이고 또 하나는 司馬相如의 작품인 <大人賦>이다.¹⁹ 이 둘이 군데군데 축어적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어느 것이 다른 것을 모방했는가 하는 점에 대한 고증적 문제가 일어나는데 호크스氏가 보기에는²⁰ 사마상여가 <이소>와 같은 문체로 되었던 <원유>라는 시를 부로 변형시켰으리라는 것이다.

이 배후에는 漢代의 체계화된 우주론이 자리잡고 있다. 여기서 상정된 우주는 각기 하나의 신성에 의해 지배되는 부분들로 나뉘어져 있는데,

¹⁸ D. Hawkes ; 상계서, 18-28, 42-51.

¹⁹ <史記>, 권 117.

²⁰ 상계서, 191-193.

작중의 여행자는 바로 그 신성과의 화합을 회구한다. 그래서 이 여행자는 동서남북에다가 그 한가운데를 합친 다섯개 방향에 위치한 장소들을, 바뀔 수는 있지만 동에서 시작하여 결국 천상에서의 入神으로 끝나는 그런 순서에 따라, 차례로 찾게 된다.

중국을 가로지르는 소유의 족적을 양 부에서 기술된 행로와 비교해 보면 <원유>와 비슷한 점들 그리고 <대인부>와의 꽤나 긴밀한 유사성이 눈에 띈다. 주인공은 동쪽에 있는 고향을 처음으로 떠나 서쪽 방향으로 여행한다. 그러나 그는 수도에 이르지 못한다. 도중에 그는 자신의 첫번째 연인을 만나게 된 華陰에서 산으로 피신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소유는 한 신선을 만나는데, 그는 소유의 운명을 예언하면서 그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준다. 출발점으로서의 일시적인 복귀로 이어지게 되는 이 동에서 서로의 첫번째 유람은 신비로운 여행자들의 전통적인 행로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들도 처음 외유하는 동안 똑같이 하나 또는 여러 도시들의 조언을 받고 있는 것이다. <원유>에 나오는 시인은, 원점으로 되돌아가 다시 채비를 갖추기 전에, 王喬한테로 가서 그에게 알 듯 모를듯한 물체들에 관해 여쭙보고 있다. 사마상여의 대인도 똑같이 하고 있다. 小陽으로 불리우는 동에서 출발한 그는 不死의 신선들을 만나러 우선 太陰으로 향하며, 이어 동으로 되돌아 와서 다시 떠나간다. 동에서 출발하는 첫번째 유람, 도인들과의 담론, 원점으로서의 일시적인 복귀 등등,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이다.

유사성은 또다른 세부묘사, 즉 젊은 주인공 여행을 강제로 중지 당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도시의 이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 첫번째 에피소드의 무대가 왜 다른 그 어느 곳도 아닌 화음으로 설정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이유는 長安 동쪽의 陝西省에 들어 있는 화음이란 도시는 소설 첫 문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신성한 산들 가운데 하나로서 일명 西山이라

불리우기도 하는 華山의 기슭에 위치하는 사실에 있다.²¹ 동쪽에 있는 자신의 출생 도시를 출발한 소유는 그러므로 동에서 서로의 완벽한 첫번째 여정을 끝마쳤던 셈이다.

그러나 이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화음이란 도시명은 이곳이 華山의 북쪽, 그러니까 陰의 측면에 위치한다는 사실에서 유래된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도시가 부여받은 다른 호칭들 가운데, 비록 짧은 기간동안만 통용되었지만, 바로 당나라 시대에 붙여졌던 太陰이란 것도 주목된다.²² 북의 이 큰 陰은 다름아닌 신선들의 거처였던 것이며 작중의 대인이 신선들을 찾아 헤맸던 곳이다.²³ 화음은 또한 <원유>에 나선 시인이 첫번째 신선 王喬를 조우한 자리이기도 했고, 한무제가 와교및 赤松大師등을 기려서 集靈宮이라는 궁전을²⁴ 세웠던 곳이다. 그런즉 주인공이 행한 첫번째 여행의 종점은 우연히 선정되었던 것이 아닌 듯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행이 허구 속에서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는 나귀를 타고 범상하게 길을 밟아가는 바, 화음에서는 실제 여자에게 훌쩍 빠지며 이어서 그가 신선한테서 받게 되는 가르침은 조금도 신비로울 게 없는 것이었다. 소유가 그를 통해 입문한 예술인 음악은 무엇보다도 여자들을 정복하는 데 이용될 것이었다. 실제로 소유는 환속했을 때 신선으로부터 비파와 피리 외에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는데, <彭祖方書>라는 이 책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건들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를 짐작케 한다. 이 <方書>는 房中術에 관한 것이었으며 책이름이 보여주듯이 음양에 관한 대가이었던 彭의 저술로 알려져 있다. 그는 800년도 넘게 살면서 90명의 여자들을 즐겁게 해주었다고 한다.²⁵

²¹ <爾雅>, 釋地.

²² <新唐書>, 권 37.

²³ <史記> 117, 大人賦: "邪絕少陽而太陰兮 與真人乎相求".

²⁴ <陝西志輯要>, 1827, 華陰縣, 면 329, 697.

²⁵ 彭祖에 관해 <史記>, 권 40과 <太平廣記>, 3-2에 참고.

이렇게 무장한 소유는 두번째 여행을 위한 채비를 갖췄다. 앞서 인용된 두 편의 부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그는 다시 한번 동쪽에서 출발했다. 여정은 그들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들도 있다. 사마상여는 대인의 행로를 동-남-서-북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원유>에서는 이점이 덜 명확하기는 하지만, 각 공간 영역을 지키는 수호 신령 방문에 관한 언급들을 일일이 따라서 그 추적을 가능케 하며 그리하여 마찬가지로 동-남-서-북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구운몽>에는 모호한 데가 전혀 없고 각 단계의 지명은 지도상으로 쉽게 확인된다. 동에 있는 회남에서 재출발한 소유는 먼저 洛陽과 長安, 즉 중앙으로 갔다. 여기서 그는 북쪽의 燕나라로 원정을 떠났으며, 다시 장안으로 되돌아와서는 서역(티베트) 사람들과 싸우러 서쪽으로 출발한 것이다. 이곳으로부터 그는 꿈 속에서 남쪽 즉 南海와 衡山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리고 이승으로 돌아와 그는 서쪽의 崑崙山에서 재등장했다. 하늘로 나아가는 문이 있다고 전해지는 이 산맥은 <이소>에서 세상 편력의 중심으로 되어 있다. <원유>의 작가와 <대인부>의 대인은 거기서부터 차례로 북쪽으로 날아 가며, 다시 그 산에 돌아온 뒤 거기서 떠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일체 없는 완전무결한 천상을 향해 비상하고 있다. <구운몽>의 주인공은 북으로 가지 않고 崑崙에서 하늘로 날라지는 꿈을 꾸고 있었을 뿐이다.

거기서 그가 발견한 것은 약혼녀 정경패의 환영이었다. 소유는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안닌가 자문해 혼란과 불안에 빠지게 되었다. 천상에 올라서도 도교적인 평온의 계시를 못 받은 것은 물론 그 일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모든 것의 허망함을 깨우치기 전까지는 그녀와의 사랑이 성사되고 그리하여 그를 행복의 극치로 이끌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소설이 새 출발을 해서 중앙에서, 동에서(회남), 남에서(上林) 이루어진 여러 사건으로 계속 전개된다. 하나같이 사랑스러운 여덟 여인들에 둘러싸인 주인공이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그가 행복의 절정에 있을 때야 비로소 일어난 일이다. 이 깨달음이 갖는 불교적인

성격은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만 소유가 張良에 뒤이어 赤松子(赤松大師)의 거처를 향해 떠나려는 의도를 표명하고 있음을 볼 때 소유의 최종 단계는 도교적 색채가 있기도 하다.

소유의 이러한 천하 구석구석에 걸친 여행들 가운데 일부는 군사적인 원정들인데 이루어지는 방식은 아주 정형화된 것이다. 먼저 한두개의 귀절이 중앙정부의 대응을 촉발시켰던 사건들을 알려준다. 황제의 파견관인 節度使가 군사지역내에서 일으킨 반란이라든가 실제로 唐대에 다수 발생한 서역(티베트)인들의 노략질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내막과 연대는 모호한 채로 남아있다. 역사적 배경이 막연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꿈꾸는 사람이 자신을 미래로 투사시킬 때 그 배경은 여전히 그가 사는 當代가 되는 것이다.

이런 군사적인 모험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이 설정만 되었다면, 상상력이 얼마든지 발휘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구운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반란자들을 상대로 하든지 아니면 서역인들을 상대로 하든지간에, 양소유가 제안하고 황제에 의해 전폭적으로 수용된 계획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닌 것이다. 그이가 한 일은 나아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을 뿐이다. 이어서 성공을 거둔 방식은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마디로 언급되는 데 그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그의 모든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바이고 또한 무슨 성공이든지 빠짐없이 이룩하고 있었다는 사실뿐이다.

이와 같은 뜻으로 원정에 관한 이야기에 상투적으로 따라붙고 있는 한가지 비교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唐朝의 최고 군사령관인 汾陽王 郭子儀(697~781)에 대한 것이다. 먼저 그 이름을 소유 자신이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²⁶ 티베트인들이 또다시 중국을 침략하자 소유가 그들을

²⁶ 石軒편 221, 백영편 202.

진압하겠다고 황제한테 자청했다. 그가 승리를 거둔 후에 그 유명한 장군과 비교하는 말이 이번에는 황제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²⁷ 뒤에 이어 소유가 곽자의를 뒤덮은 것과 동등한 영예를 부여 받았음을 작중의 화자도 덧붙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²⁸ 좀더 뒤쪽의 본문 내용에 나와 있듯,²⁹ 이러한 명예들은 그의 경력이 끝나는 60세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그 초창기인 20세 때 주어지고 있으므로 소유는 곽자의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이다. 이것이 두 사람의 전술 능력보다는 이들의 모습을 대비하는 것뿐이다. 김만중 시대에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곽자의의 이미지, 한국의 민간 소설들이라든가 한국 또는 중국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곽자의의 이미지,³⁰ 다시 말해서 욕구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손아귀에 넣은 최고의 인물이 갖는 이미지에 비추어 소유를 저울질해 보는 셈이다. 비교는 결국 소유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등상을 탄 이는 소유라는 사실이 일단 확인되었으므로 군사적인 전투에 대한 이야기는 더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역사적으로 9세기에 반란이나 서역인들의 침입이 내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는 것이다. 원정과 관련하여 소유가 명예의 최고봉에 오른 뒤, 황제와 나란히 사냥놀음에만 참여했다는 것뿐이다.³¹ 사냥이 행해졌던 숲은 사마상여의 <대인부>에서 극도의 찬사로 묘사되고 있는 上林인데 이곳에서의 유희도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 독자들은 단순히 그것이 주인공의 이력서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만 한두 문장으로 통고 받을 뿐이다.

길게 소개되는 원족이 단 하나 있기는 한데, 장안 부근에서 행해진 사냥 나들이가 그것이다. 이는 소유의 우수성이 그의 처자들에까지

²⁷ 石軒편 230, 백영편 236.

²⁸ 石軒편 246, 백영편 300.

²⁹ 石軒편 275, 백영편 404.

³⁰ <곽분양전>이란 소설등및 조선 시대의 회화 많은 작품을 참고.

³¹ 石軒편 259, 백영편 344.

미친다는 점, 음악과 가무 그리고 승마와 궁술 등 그가 지닌 다양한 재능이 그의 모든 경쟁자들의 재능을 압도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사마상여의 부에서 묘사된 황제 주최의 사냥에 결들여 벌여졌던 향연을 연상케 하는 구석도 없지 않다.

인생의 허망함이 갑자기 밀어닥친 노년에 이르러서도 소유는 또다시 원정을 착상하고 있다. 굴원이 彭成의 거처로 가야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이소>의 마지막 귀절을 상기시키는 말로³² 다음번 출발을 통보하고 있다. 불교적 깨달음에 직전에 다다른 이 순간에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역시 신선들이 사는 곳으로의 여행이다.

3. 제목

<구운몽>의 작가는 <초사>와 한대의 부들에서 영감을 받은 것에 틀림없다. 이재의 말대로 공명부귀의 허망함을 표하기 위해 주인공이 그 문학의 신비한 여행자들의 족적을 답습하게 하고 그야말로 이른바 楚騷의 遺意를 받아서 이 소설을 지은 것이다. 이와 같은 문학적 관련을 확증한 결과로 이것은 풀기 어려운 <구운몽>이라는 제목을 해명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어볼 만하다. 일견하여 거기에 아홉이란 숫자는 남자 한 명과 여자 여덟 명의 작중 인물들에 대한 셈으로 보인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외국어로 옮기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미가 판이한 여러 번역이 가능한 사실이 드러난다. 생략된 속격의 "의"를 어디에다 끼어넣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다. <九의 雲夢>인 것을 가정하면 아홉 명이 끈 구름에 대한 꿈이라는 말이 되며 <九雲의 夢>이면 아홉 개 구름들에 대한 [하나의] 꿈이라는 제목이 된다. 전자는 J.S. 게일의 <*The Cloud Dream of the Nine*>이며³³ 후자는 R. 러트의 <*A Nine Cloud Dream*>에

³² 石軒편 279, 백영편 410.

³³ *The Cloud Dream of the Nine*, translated by J.S. GALE, London, 1922, 재판: 九雲夢, 한국고전문학대계 9, 민중서관, 1972,

해당된다.³⁴ 그리고 목적언어에서 관사를 쓰는 여부에 의해 또 쓰는 경우 정-부정 관사를 택하는 여하에 따라 다르게 새길 수도 있는데 가능한 여러 번역은 서로 틀리기는 하지만 각각 작품의 일면에 맞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흥미로운 사실은 다의적 <구운몽>의 풍성함을 예증한다고 하겠다.

제목은 작품에 얹은 저자가 뜻한 바를 바로 알아내려면 김만중의 다른 소설인 <남정기>의 사례를 참고함이 좋지 않을까 한다. 南征이란 제목의 두 글자는 인용문인데 이재가 <구운몽>에 관해 떠올린 바로 초소에서 따온 것이다. 그 초 문학의 근본이 되는 <이소>에서 나온 표현이며 주인공 사부인을 굴원과 결부시켜 그 여인의 우의적인 뜻을 암시하는 서명이다. 마찬가지로 <구운몽>의 제목도 그들 초소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한나라의 부들을 읽을 적에 雲夢이라는 두 글자를 거듭거듭 보게 되는데 이것은 옛 초나라 어디에 위치했다는 높이 많은 광대한 지역의 이름이었다. 그 정확한 위치는³⁵ 전문가들의 이견이 많아 알 수 없지만 한나라의 유명한 시인 송옥이 지은 여러 부의 지리적 배경으로 나와 있다.³⁶

뿐만 아니라 사마상여가 쓴 <子虛賦>라는 부에서 이 지명이 아홉 숫자와 결부되어 있는 두 행도 있다. 세 사람의 회담으로 되어 있는 <사기>에 실려 있는 이 부는 다음과 같이 소개 되어 있다.³⁷

"子虛虛言也, 爲楚稱, 烏有先生者, 烏有此事也, 爲齊難, 無是公者, 無是人也, 明天子之義."

³⁴ *A Nine Cloud Dream*, translated by Richard RUTT and KIM Chongun, pp. 1-177 in *Virtuous Women*,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Seoul 1974.

³⁵ 이 위치에 대해 <漢書>, 권 28 참고.

³⁶ <文選>, 권 19, 宋玉의 <高唐賦>와 <神女賦>를 참고. 남자가 운몽 지역이 내려다보이는 雲夢臺 또는 高唐臺라는 높은 데서 女神과 연애하는 이야기들이다. 한문학에 밝은 사람에게는 운몽이라는 지명은 이런 비범한 연애를 연상시킨다. 또 <子虛賦>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지명의 夢자는 꿈이라는 뜻이 아니라 澤(늪)이라는 의미다.

³⁷ <史記>, 권 117, <文選>, 권 7.

"말이 빈다는 자허는 초나라를 찬양하며 이런 일이 있나라고 [불린] 오유선생은 그를 비판하고 제나라를 변호하며 이 사람이 없다고 [부름을 받은] 무시공은 천자의 뜻을 밝힌다."

자허가 기리는 초나라의 장점들 가운데 雲夢평야의 넓디넓은 수렵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 부의 말단에 이르러 제나라의 사자가 다음과 같은 반격을 하고 있다.

吞若雲夢者八九，其於胸中曾不薜芥。

[우리 나라는] 雲夢같은 것을 여덟 아홉개를 삼켜도
가슴속에 가시나 겨자씨만도 못할 것이다.

雲夢 아홉개를 삼킨다는 이 과장법 글귀는 그로부터 계속 사용되어 왔으며³⁸ 후기에 와서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 어려운 일을 쉽게 해낼 능력이 있다거나 께털감을 느낀다는 것을 표현하게 되었다. 고려 시대의 林樿이 지은 시에서 볼 수 있듯이³⁹ 한국에서도 알려진 숙어이었다. 그는 경기도 紺岳산에 살던 도인을 찾아 인사한 다음 그 집에서 나와 난간에 다가서고 넓은 경치를 내려다본 인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臨軒一望大千界

不啻胸中九雲夢

현함에 임해서 한번 대천세계를 바라보니

가슴속에 운몽은 아홉뿐 아니구나.

大千界는 이른바 一大三千세계의 준말로써 불교 우주론에 있어서 삼천 세계를 담고 있는 전 우주를 의미하므로 그 산에서부터 보였던 전망은 웅대했으나 보다. 따라서 위의 이 두 행의 뜻은 자명하다. 첫 행은 경치의 광대함을 말하고 둘째는 그것을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雲夢 아홉이란 이와 마찬가지로 옛 황제들과 같이 천하의 어디든지 다 다녀보았고 대장과 승상자리까지 올라 온세상의

³⁸ 예를 들어 <文選>, 권 28, 齊謳行.

³⁹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11, 積城縣.

주인으로 자처할 수 있었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알맞는 서명이라 하겠다. 이재와 당시 선비들은 이 세 글자의 출처와 의미를 대번 파악했음은 틀림 없겠으나 그 후배들은 언젠가는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 같다.⁴⁰

4. 이유

초-한 문학에 대한 참고가 이와 같이 다분히 있는 사실을 밝혀놓고는 그 뒤에 있는 이유에 대한 문제가 자연히 일어난다. 작품중에 그 문학에 대한 언급이 많을 뿐더러 제목까지도 거기서 따온 숙어라는 것을 감안하여 단순한 장식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 이재가 그 문학에서 남겨진 뜻(意)을 말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초소와의 관계는 표현에 국한된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작품의 깊은 내용과 맺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 조선 시대에 김만중만큼 중국 문학에 조예깊은 학자가 사마상여의 여러 부에 대해 알던 바를 묻는 것이 좋은 방법일 듯하다. 참고 자료는 사마천이 <사기>에서 쓴 사마상여의 전기일 것이다.⁴¹ 거기에 그의 부가 모두 전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읽는 자는 太史의 도덕적인 주석을 간과할 수 없었다:

"相如雖多虛辭濫說 然其要歸引之節儉.

[사마상여의 글은] 비록 환상한 말과 엉뚱한 이야기들이 많아도 결국 절제와 검덕에 이끌어가는 것이다."

사마천의 이러한 권위적 코멘트에 의거해 사마상여의 부들은 다 교훈이 담겨진 것으로 해석되어 왔었다. 얼핏 보기에 오직 개인의 도덕에 대한 말로 이해될 수 있겠으나 다음 문장은 다른 방향을 지적하고 있다:

"此與詩之風諫何異.

이는 <시경>의 풍자와 간언과 어찌 다를 것인가?"

⁴⁰ <구운몽>이란 제목을 외국어로 번역할 때 이 뜻대로 새기는 경우 <Nine Unmongs> 또는 <Nine Yunmongs>이라는 말이 나와 외국 독자가 이해할 수 없는 제목이 될 테니 종래대로 번역함이 좋으리라.

⁴¹ <史記>, 권 117, 그리고 漢문학의 賦들은 <文選>에도 기재 되어 있다.

달리 말해 누구나 이 전기를 읽어서 사마상여의 여러 부에 비판이 은연히 내포되어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인부>의 독자는 극도로 과장된 도교적 환상을 볼때 거기에 그것을 몹시 즐겼던 당시 황제를 은근히 풍자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었을 것이다. 조선 시대 그 독자는 또한 <한서>를 읽어 "皆作賦以風[=諷]" (모두 풍자하기 위해 부를 지은 것이다)라고 한 일반 성명도 보아서⁴² 확인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唐代 李善의 주석이 달린 <문선>도 참고하게 되면 사마천이 쓴 諷과 諫 두 글자가 사용된 것을 또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고 거기서도 <사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마상여 부들은 다 정치적 풍자라는 해석이 나와 있다. 諷諫 이 두 자는 일찌기 합성어가 되어 군주에게 빗대어 바쳐진 풍자와 간언 즉 간접적인 충고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런 전통적 해석을 잘 알던 김만중은 소설을 지어 주인공으로 하여금 초나라 출신으로 자처하게 하고 소위 대인의 자취를 따라 천하의 동서남북을 다니게 했다. 아울러 <남정기>에서 하던과 같이 작품의 의미를 암시하기 위해 허세와 자만이 연상되는 초소의 술어를 따서 제목으로 삼았다. 사마천의 설명에 의하면 부들의 풍자적인 뜻은 여러 과언에 들어 있다는데 과장된 이야기야 소유의 일대기에 허다하다. 남성 정욕의 충족,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여자들을 데리고 화목한 가정 생활을 하여 티가 없는 행복을 일평생 누리면서 대장과 승상 자리에 오르고 황제의 사위가 된다는 일등은 두 말할 나위 없이 가능한 범위를 넘는 공상들이다.

초-한 문학에 대한 언급이 많은 이 소설을 지을 때 저자는 평안도 宣川에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유는 왕이 불임의 왕비 민씨를 소홀히 하고 태자를 낳기 위해 서인파에서 입궁시켰던 김씨을 무시해버리고 파벌 배경이 다른 장씨만을 총애하고 있었던 것을 간한 소를 올렸기 때문이었다. 양소유의 비범한 여자관계와 성적 품행을 기술하고 있던 그는 숙종의 행세를 과장해서 비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의문이 생긴다.

⁴² <漢書>, 권 30.

김만중은 <남정기>를 쓸 적에도 초 문학의 테마를 차용해서 버림을 받은 부인을 굴원과 대비했다. 굴원은 추방을 당한 신하를 이런 사정에 있는 여자와의 비유를 <이소>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던 시인이다. <남정기>는 유배소에서 선천(1687-1688) 아니면 남해(1689-1692)에서 지어진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아서 주인공 사부인을 굴원에 비긴 것은 당시 작가의 사정과 관계가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구운몽>도 유배소에서 같은 무렵에 쓰인 작품이다.⁴³ 창작하고 있을 때 <남정기>의 경우와는 달리 빌려 쓰고 있던 테마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개의치도 않고 자기 빠져 있던 곤경과의 관련의 가능성을 파악치도 못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작품중 반복된 비유와 여러가지 언급은 분명히 저자가 뜻한 바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은 김만중이 <구운몽>을 군주에 대한 풍간으로 썼다고 전하는 자료는 전혀 없다. 하지만 <남정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후자 경우에 실재 있는 것은 김만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종손 北軒 金春澤 (1670-1717)에 대한 것이다. 그 사람이 왕의 의향을 돌리기 위해 궁녀들간에 <남정기>를 보급시켰다는 신중히 다루어야 할 구전으로 내려온 이야기가 있다. 이 구전을 기록한 19세기 중엽의 자료도 있는데⁴⁴ 이것은 김춘택을 저자로 지명하고 있고 폐비를 당한 인현왕후에 대해 왕의 마음을 깨우치기(悟聖心) 위해 썼다고 전하고 있다. 구전과 기록은 둘다 주인공 사부인을 불행한 왕비와 결부시키는 우의만을 이르고 있고 굴원을 통해 유배당한 작가와 관련시키는 둘째 우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다. 사실 필자가 이 후자가 <남정기>에 들어 있음을 밝힌 다음에야 김춘택이 종조부의 작품에 대해 쓴 글에 주의하게 되어 저자의 종손은 굴원에 대한 우의를 명시하지 않으면서 이 언문 소설에 유명한 <이소>에 대한 朱子の

⁴³ <구운몽>이 1687 가을에 宣川서 지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西浦年譜>, 상계서, 쪽 330 참고.

⁴⁴ 李圭景, <五州衍文長箋散稿>, 재판: 서울, 1959, 권 1, 쪽 231.

비평까지를 적용함으로써 이런 해석을 시사하고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⁴⁵ 본래 <남정기>의 한역서의 서문이었고 나중에 <북헌집>에 실린 이 글은 먼저 중요한 정보를 일러주고는 작품을 극찬하고 있다. 이 뒤의 말은 가족 정신에 의한 과장된 찬사로 여겨져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져 왔었다. 김춘택은 종조부의 소설에 정치적 뜻이 있던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었다. 이 우의가 오래동안 간과되왔던 사실을 감안할 때 초소 문학에 빗댄으로써 <구운몽>에 함축되어 있는 미묘한 뜻도 같은 운명을 당한 것이 이해가 된다.

이렇다고 해서 <구운몽>의 저작이 정치적 행위이었다는 것이라든가 정계나 누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해석에 아무 근거도 없다. 이재가 전한 바대로 <구운몽>을 쓴 일은 가족들끼리의 것이었다. 한편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초소에 대한 많은 언급과 저자의 사정간의 상호 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결론은 자연스럽게 이끌려 나온다. 즉 <구운몽>은 <남정기>처럼 다채로운 작품이다. 후자의 충실한 부인은 고초속에서의 부덕의 모범이 되면서 우의적으로 궁전에서 쫓긴 왕비를 대표도 하고 또 굴원의 거울에 비추어져 불신을 억울하게 당한 충신의 상징도 된다. 이와 비슷하게 <구운몽>은 노모에게 불교의 위안을 드리기 위해 지어진 우화로서 그녀를 웃길 만한 우스운 장면들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저자는 초-한 문학의 테마들을 차용해 서울 왕궁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사건에 대한 소감을 동시에 드러낸 것이다. 굴원과는 달리 신랄한 표현을 안 썼고 경쾌한 식으로 한 것이다. 사마상여의 부들과 공통적 면도 있지만 <구운몽>에 부 문학의 울창하고 화려한 문체가 없음은 물론이다. 저자는 초-한 문학에 대한 이 많은 언급과 비유를 쓴 일은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같은 서울에서 두고온 부녀들을 위해 했다가 보다는 낙으로 했다고 보는 편이 적합할 것이다.

⁴⁵ 줄고, <北軒集>의 南征記說, 東方學志, 43, 1984년, 쪽 143-175.